

性役割 正體感 尺度 開發에 관한 研究

A Study on the Sex - Role Identity Inventory

漢陽大學校 家庭管理學科

講 師 張 夏 慶

教 授 徐 炳 淑

Dept. of Home Management, Hanyang University.

Lecturer; Chang, Ha Kyung

Professor; Seo, Byong Sook

目 次

- | | |
|-----------------------|------------------------|
| 1. 서론 | 2) 본조사: 성역할정체감 척도 문항선정 |
| 2. 이론적 배경 | 3) 채점방법 |
| 1) 성역할 | 4) 타당도 검증 |
| 2) 현대사회와 양성성 | 4. 결과 및 논의 |
| 3. 연구방법 및 절차 | 참고문헌 |
| 1) 예비조사: 성별 성역할특성군 수집 | |

〈Abstract〉

Sex role reseach in korea has been hindered by the absence a sex role inventory which is based on the sex role stereotypes of the Korea society.

This study has attempted to establish the korean sex-role identity inventory in line with the theory and methods of the androgynous perspective,

In a prelininary study 450 judges rated the desirability of 156 personality characteristics for males and females in Korean society. Following Broverman's procedure for item selection, male-oriented traits(20 items), female-oriented traits(20 items), and neutral traits(10 items) were selected. Sex-role identity inventory were administred to 982 judges.

Compared to the translated versions of foreign sex role inventories or the masculinity-feminity scales of the traditional personality tests which do not correspond with androgyny theory, the results of this study have various advantages for sex-role reserach in Korea.

I. 서 론

오늘날 우리사회는 산업사회로의 전환과 더불어 노동형태와 가족구조가 변화됨에 따라 직장과 가정에서의 남녀의 역할도 변화에의 압력을 받게 되었다. 전통적인 사고와 행동양식은 남녀 모두에게 현대의 생활구조에 적응하는데 장벽이 되고 있으며¹⁾ 교육과 기회의 균등, 자아실현의 욕구등이 성별을 초월한 "평등화"와 관련된 새로운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러한 새로운 시대적 흐름으로 남성과 여성의 성차이와 유사성에 대한 연구는 성역할 사회화과정과 함께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성역할에 관한 연구, 즉 남성성과 여성성에 대한 연구는 그 사회의 성역할 고정관념을 기준으로 하여 개인의 성역할 정체감과 적응과의 관계에 초점을 두고 있다. 성역할정체감이란 "사회가 그 성에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특성이나 태도 혹은 흥미와 동일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²⁾으로 인간의 행동과 태도 혹은 가치 등은 개인이 속해 있는 사회에서 규정하는 성역할 고정관념에 대한 성역할 사회화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본다.

이러한 연구들은 1974년 Bem을 위시한 여러 학자들이 표준화된 성역할 측정검사를 개발함으로써 개인의 성역할정체감에 관한 전반적인 연구의 체계가 형성되었다. 그 중 Bem의 성역할 측정도구³⁾는 오늘날까지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대표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BSRI(Bem Sex Role Inventory)라고 약칭하고 있다. 원래 BSRI는 심리학적 양성성을 체현하고 있는 인물을 선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서 작성되어 있으며 Bem에 의한 양성적 인물이란 남녀 모두의 성의 특성이 몸에 배어 있는 자로 남성역할과 여성역할의 모두의 역할을, 상황에 따라서 자유롭게 선택하는 사람을 의미하고 있다. 즉, 극히 긍정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는 특징을 androgyny, 즉 양성성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다.⁴⁾

이 양성성이라는 새로운 용어는 그 이전의 학자들은 근본적으로 다른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였다. 양성성 이론을 제시한 연구자들은 남녀는 뚜렷이 다른 성격을 지녀서 여성은 여성성만을 남성은 남성성만을 가지고 있고 또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던 기존의 시각과는 다르다. 양성적 시각에서는 여성성이나

남성성이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형성된 고정관념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의 변화에 따라 남녀의 성역할은 변화하며 따라서 현대는 유능한 성인일수록 그 양자를 조합해서 지니고 있다고 주장하였다.⁵⁾

한편 Jung⁷⁾⁽⁸⁾은 이와같이 사회변화에 따라 남녀의 역할이 변화하기 때문에 현대사회에 있어서는 남성, 여성의 양자의 특성을 가진 사람이 사회적 적응하기 쉽다는 이론과는 다른 시각으로 모든 인간은 원래 남성, 여성의 두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만한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이 양자의 특성을 모두 발전시켜야 한다는 이론으로 양성성을 지지하였다. 그에 의하면 인간은 사회화과정에서 남성적인 것이 지배되면 여성적인 특성은 억압된다고 하여 남성에 있어서 억압된 여성적인 측면을 Anima라 칭하고, 반대로 여성적인 측면이 강조되면 남성적인 면이 억압된다고 하여 여성에 있어서 억압된 남성적인 측면을 Animus라고 칭하였다. Jung은 개인의 자아실현을 위해서는 이 Anima와 Animus를 함께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중년기까지 인간이 성취해야할 목표라고 하였다. 이러한 이론들은 양성성을 긍정적인 특성으로 간주하는 점에서는 맥락을 같이 하고 있으며, 사회의 생태적 환경이나 문화적 성격에 따라 성역할 특성이 결정된다는 점에서는 Freud의 정신분석이론, Mischel의 사회학습이론, Kagan의 지각된 유사성 가설, Kohlberg의 인지발달이론들과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이론들에 의하여 성역할에 관해 다수의 연구들이 이루어졌으며 이들 연구의 대부분은 성역할정체감을 적응과 관련하여 연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연구의 대부분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성역할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서 1974년 제작된 Bem의 BSRI와 Spence의 PAQ와 같은 질문지를 번역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 중 BSRI는 60개 문항 전부를 번역하여 사용한 경우도 있고, 때로는 예비검사를 거쳐 우리나라에서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문항들을 몇개 삭제하고 남은 문항들만을 실시한 경우도 있다.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검사가 없는 상황에서는 외국의 것을 번역하여 사용할 수 밖에 없으나, 이는 이론적으로도 방법론적으로도 상당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¹⁰⁾ 몇 가지 중요한 문제점을

들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질문지가 제작된 이래 우리나라는 그동안 역할면에서 여성, 남성의 역할 재정립이론과 피임법사용과 함께 부모의 자녀 출산수감소로 인한 자녀에 대한 양육태도의 변화, 그리고 사회전반에 걸친 Unisexim 등 종래의 남성의 모습과 여성의 모습 등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 또한 여성성, 남성성의 발달은 일차적으로 개인이 속한 문화권을 중심으로 사회화로서 이루어지며 성역할 검사는 그 검사가 사용되는 사회의 남녀에 대한 성역할 고정관념을 기초로 작성된다고 할 때, 15년 이상 전 미국 문화권의 성역할고정관념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검사지가 우리나라에 적합한가는 의문이 간다. 둘째, 외국의 것을 번역하여 사용하는 번역과정에서의 문제점이다. 어떤 특성의 경우는 통용되는 직역이 있더라도 그 뜻은 문화의 차에서 비롯되는 번역의 오류가 있다는 것은 비교문화연구의 방법론 논의에서 이미 거듭 지적되어 왔다.¹³⁾

이와 같은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의 성역할 고정관념을 기초로 하여 개발된 한국형 성역할 검사(김영희¹⁴⁾, 정진경¹⁵⁾)가 발표된 바 있다. 이들 검사지는 둘 다 BSRI의 개발과정을 모델로 하여 유사한 과정을 거쳐 개발되었고 연구결과의 해석에도 양성성 이론의 시각을 채택하였다.

그러나 김영희의 KSRI(Korea Sex Role Inventory)는 여성성 척도에 부정적 특성을 나타내는 척도를 절반가량 포함시켜서("쉽게 운다", "의존적이다", "변덕스럽다" 등) 양성성을 "바람직한 남성적 특성과 바람직한 여성적 특성이 한 사람 안에 공존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그래서 더욱 바람직하고 적응적인 성격인 것으로 가정"한다는 이론에 어긋나고 있다. 여성적 특성에 바람직하지 못한 특성이 다수 속해 있기 때문에 적용과 관련시켜 볼 때 여성성이 열등한 것으로 결과가 나타나리라는 것을 거의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고자 개발된 정진경의 KSR-I¹⁶⁾는 성격 특성 항목만을 수집하였으며, 특정 지역의 소수 표본의 대학생집단을 대상으로 성역할 고정관념 문항을 수집하였다는 문제점이 있다. 대학생집단은 20대 연령층으로 출생연도와 성장과정 시기를

볼 때 우리나라 경제, 문화의 급격한 흐름과 함께 변화되는 가치관을 자연스럽게 몸에 익힌 세대들이다. 따라서 남성성과 여성성을 규정하고, 바람직한 특성과 바람직하지 못한 특성을 선별하는데 있어서는 1950년대 전후 출생인 중년세대와 소위 전통세대라고 하는 노년층과는 많은 차이가 있어 이들을 대표 집단으로 하는 것은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다. 중년기 이후 연령층들은 우리나라의 인구분포의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현사회의 주도층이라는 점을 생각할 때 우리나라의 성역할 고정관념 문항을 선정하는데는 무시할 수 없는 세대들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정진경의 KSRI는 대상자집단의 특성이 점수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으로 인해 문항선정의 제한성을 배제할 수가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의 정의에 따라 여성과 남성의 성격특성에 대한 고정관념뿐 아니라 관심과 흥미분야에 대한 것까지 포함시켜 조사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의 폭넓은 성역할 특성을 탐색하고자 청년기 이후의 성인을 대상으로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여성과 남성성에 대한 고정관념을 조사하여 양성성 시각에 입각한 한국인의 성역할정체감 척도를 개발하고자 한다. 이 척도에 준거관련 타당도를 검증해보기 위해 외부준거변인으로서 중년기 위기감과의 관계를 알아보았다.

양성성 이론에 의하면 양성적인 특성을 지닌 사람은 여성적인 행동과 남성적인 행동을 모두 함으로써 더 다양한 행동을 수행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상황의 요구에 따라 유연하고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다. 따라서 양성적인 사람은 환경에 건강하게 적응하며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인 느낌을 가지게 되는데, 인간발달 단계중 중년기는 "제2의 전환기"로 표현되는 것과 같이 적응이 가장 문제시되는 단계라 할 수 있다. Jung에 의하면 중년기는 남성성, 여성성 모두를 소유할 수 있으며 이 양성의 특성이 한 개인 안에서 모두 표현되는 것이 심리적 건강을 위해서 중요하다. 이러한 성격적 특성은 중년기의 정신적 변화로 도달할 수 있는 것으로 중년기 이후 남녀 모두는 자신의 반대되는 성격 측면을 표현하기 시작하여 남성성과 여성성의 두 측면이 발달한다.¹⁰⁾ 이러한 이

성과의 관계는 의미있다고 보아 중년기 위기감을 외부준거변인으로서 본 연구의 결과인 성역할정체감 척도의 타당도를 검증해 보고자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성역할

인간을 분류하는 가장 기본적인 범주는 성별에 따른 구분이다. 개인이 남성이나 여성이나 하는 범주에 따라 주어지는 지위를 중심으로 해서 이에 따르는 행동양식, 권리와 의무, 기대등을 포함하고 있다. 남성, 여성을 각각 하나의 지위로 보고 여기에서 여성은 여성으로서, 남성은 남성으로서의 독특한 사회적 역할이 기대된다고 본다. 이렇게 개인이 남성의 역할, 여성의 역할이라고 규정할 때 어떠한 원칙을 지향하느냐 하는 것은 대체로 두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접근방법에 따라 용어의 정의와 채택되는 개념이 각각 다르고 그에 따른 조사 방법도 달라진다.¹⁹⁾

하나의 역할접근방법으로 어떤 활동이나 직업 역할이 남성 혹은 여성에게만 적합하다고 믿는 고정관념을 조사하는 접근방법으로 전통적인 성역할 태도에 근대적인 성역할 태도로 분류하고 있으며, 다른 하나는 특성 접근 방법으로 남성과 여성을 특징지어는 심리적, 행동적 특성에 대한 고정 관념을 밝히는 데 목적이 있다. 우선 전자는 평등과 불평등의 연속선상에서 성역할 태도를 규명하는 것으로서 여성이 남성과 동등하게 사회활동 및 직업영역에 수용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즉 여성은 가정에 속해 있어야 한다 등의 태도를 전통적인 성역할 태도라고 보고 여성도 남성과 동등하게 사회 활동 및 직업역할에 참여할 수 있는 태도를 근대적인 성역할 태도라고 규정한다. 이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는 M.W. Osmand & Martin(1975)의 Sex-Role Attitudes Scale (SRA)과 D.Brogan & N.G.Kutner(1976)등의 Sex-Role Orientation(SRO) 등이 있다. 후자는 한 사회의 남녀를 구분하는 성차는 개인이 소속된 문화적 전통이나 관습에 의해 자신의 성에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행동, 태도, 특성을 획득하는 성유형화(Sex-Typing)

과정과 그것을 포함해서 부모, 형제 등 사회적 구성원을 통해 성별에 적절한 역할을 인식하는 성역할사회화 과정을 통해서 형성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성유형화와 성역할 사회화 과정을 통하여 개인은 성역할 고정관념을 습득하게 되는데, 성역할 고정관념이란 일반적으로 사회가 성에 따라 모든 남녀에게 인정하고 적용시킬 수 있는 보편적이고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는 성역할에 대한 고정적인 견해이다라고 정의된다.

성역할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는 Heilbrun Adujective Check List(ACL, 1965), Williams & Best의 Sex-Trait Sterotypes Measurement,(SSM II, 1972), Bem의 Sex Role Invenroty(BSRI, 1974), Spence의 Personal Attributes Questionnaire(PAQ, 1975) 등이 있다.

그러나 이들 역할접근방법이나 특성접근방법 연구 모두 남녀간의 태도를 "Sex role"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또한 번역과정에 있어서도 "성역할"이라고 공용함으로써 용어에 있어서 혼동과 착오가 있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특성접근방법에 의해 "sex-role(성역할)"을 논하기 위하여 먼저 오늘날 우리 한국사회의 문화와 관습에 의해 남성과 여성에게 특징짓고 있는 심리적, 행동적 특성에 대한 고정관념을 밝히고자 한다.

따라서 연구의 접근방법의 방향에 따라 본 연구에서 기본으로 하고 있는 성역할개념에 대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성유형화(Sex-Typing)

개인이 자신이 속한 문화권에서 자신의 생물학적인 성에 적절한 것으로 고려되는 성격특성, 행동양식 및 가치를 획득해 나가는 과정을 말한다.

(2) 성역할 고정관념(Sex-Role Stereotype)

남녀를 구분하는 특성으로 사람들에게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견해로 사회가 성에 따라 모든 남녀에게 인정하고 적용시킬 수 있는 보편적이고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는 성역할에 대한 고정적인 견해이다.

(3) 성역할정체감(Sex-Role Identity)

개인적 정체감의 한 측면으로서 성역할 고정관념과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 각 개인의 행동

과 성격에 나타나는 남성적 특성과 여성적 특성의 정도와 형태를 말한다.

2. 현대사회와 양성성

1960년대 초, 미국사회에서부터 시작된 사회 및 경제분야 등 여러분야에서 남녀의 평등화를 부르짖는 이른바 여성운동은 남녀 모두의 라이프 스타일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¹⁵⁾ 이러한 흐름에 따라 심리학에서는 인간의 성차를 연구하는데 있어서 전통적 성역할개념에 이의를 제기하고 남녀양쪽에 대한 바람직한 성역할개념에 대한 제안이 대두되었다. 종래의 성역할에 대한 연구들은 전형적인 성의 특성인 남성성과 여성성을 양극으로 된 연속체상의 단일차원으로 보고 남성성과 여성성의 두유형은 매우 배타적이고 상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은 두 유형 중 한 쪽성만을 지녀야 한다¹⁶⁾고 하였다.

1973년 Constantinople¹⁸⁾은 이러한 남성성-여성성 척도들을 단일차원으로 보아 남성성, 여성성이 양극으로 나뉘어 각기 양성을 대표한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Constantinople의 전통적인 남성성-여성성 척도에 대한 평가는 성역할에 대한 최초의 근대적인 견해나 태도의 시도라고 할 수 있다. Bem은 Constantinople의 이 견해를 받아들여 성역할이 양극개념으로 이해되어져서는 안된다는 신념하에 양성성을 대표할 수 있는 성역할 측정도구를 개발하였다. 이 척도는 오늘날까지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대표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BSRI(Bem Sex Role Inventory)이다. Sandra Lipsitz Bem은 어떤 사람이 얼마나 남성적인지, 여성적인지 혹은 양성적인지를 측정하기 위해서 성역할 목록을 고안하였던 바, 60개의 성격 특징으로 된 성역할목록으로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남성적"이라고 생각되는 20개의 특성들(야망, 자립성, 주장성 등), 여성성이라고 생각되는 특성 20개(애정, 상냥함, 이해성 등), 그리고 중성적인 특성 20개(정직, 우호성, 온화성 등)가 포함되어 있다.

이 척도에 의하면 남성적인 사람이 동시에 여성적일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양성성이다. Bem¹⁹⁾은 남성 역할과 여성 역할 모두의 역할을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특성을 "양성성"이라고 하여 개

인의 적응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양성성이 곧 적응력"이라는 이론을 등장시켰다. Bem의 연구에서는 1500명 이상의 대학생들을 검사하였는데 그 중 약 30%가 양성성, 즉 androgyny라고 밝혔다.¹⁹⁾ androgyny란 andro(雄)과 gyny(雌)의 합성어이지만, 심리학적 의미에 있어서 andro와 gyny는 배타적인 관계가 아니다.²⁰⁾ 심리적 양성성의 개념은 "한 사람이 남성성과 여성성을 동시에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도구적 역할과 표현적 역할을 모두 수행할 수 있다는 보다 효율적인 성역할 개념"을 의미한다.²¹⁾ 따라서 남성성과 여성성은 서로 독립적이거나 상호배타적이 아닌 관계에 있으면서 개인의 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차원으로서 상황적 여건에 따라 남성적이거나 여성적일 수도 있는, 즉 양성성을 매우 바람직하고 이상적이기까지 한 상태로 보는 견해로 점차로 많은 연구들에 의해 지지되고 있다. Marack²²⁾는 현대사회는 심리적 양성성의 발달이 요구되는 사회라고 주장하면서 그 이유로서 오늘날 사회에서 효과적인 기능을 위해서는 양성적인 사람의 융통성과 적응성이 필요로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더 나아가서는 변화하는 환경과 세계에 대한 심리적·사회적 '적응'이란 관점에서 볼 때, 어느 한 성별의 특성에 얽매이기보다 양자의 특성을 모두 소유하는 편이 적응력이 우수하다는 주장²³⁾이 있다.

이와같이 성차와 개인차를 포괄할 수 있는 양성성의 개념은 평등주의와 개인주의적 성역할 기준으로 정의되는 '현대적 성역할'의 개념과 밀접하게 관련되어졌다.²⁴⁾

그러나 한편 Jones 등²⁵⁾은 일련의 연구를 통하여 개인의 적응력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양성성이 아니라 남성성이라 밝히면서 '양성성이 곧 적응력'이라는 Bem 등의 가설을 부정하였다. Yager와 Baker²⁶⁾도 여성성과 관계없이 남성성의 존재만이 개인의 적응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남성성 우월효과'라는 용어를 소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효과의 배경에 대해서는 남성적 특성이 미국사회에서 높이 평가되고 있는데 있다고 설명하였다.

현대사회는 물질적생산, 정신적창조의 대부분의 면에서 남녀가 공존하여 동참하여 활동하는 개방사회로 변해가고 있다. 개방사회란 Popper에 의하면 우

리가 도달해야 하는 미래사회로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된 사회이며 스스로 판단하고 책임을 지는 사회로서 인류의 역사는 열린사회를 향한 끊임없는 접근이다”²⁷⁾라고 하였다. 이러한 개방사회에 대한 사회적 동향은 남녀평등사회, 인본사회로의 진전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날 인간을 둘러싼 폐쇄성의 하나인 “성차별”의 극복을 하나의 과제로 삼고 있다. 즉, 오늘날의 사회는 특정의 성에 고정된 역할보다는 어느 성에도 한정되지 않는 상황에 따라서 융통성있게 적용할 수 있는 성특성을 요구하게 되었다. 여성으로 하여금 가정외의 사회에 관심을 갖게 하여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그리고 지역사회까지 사회생활의 각 영역에 영향을 미쳐 “평등화”에 입각한 남녀의 역할에 많은 문제를 제기하게 하고 있다. 반면, 남성에게는 강한 육체적 힘이나 부드러운 정서의 억압, 여성에 대한 권위적 태도 같은 남성간의 강한 유대등을 강조했다. 전통적 성역할보다는, 대인적이고 지적인 기술을 요구하며 여성과는 동료로서 상호존중하는 관계를 맺는 반면 같은 남성간의 관계는 상대적으로 약화시키는 새로운 남성성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²⁸⁾ 이와 같이 현대사회는 전통적인 관점에서의 남성과 여성이라는 성에 관계없는 개개인의 자아실현과 평등한 인간관계의 성립이 갈등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따라서 남성의 특성을 여성의 특성보다 높이 평가하고 있는 남성위주의 가부장제 사회에서와 같은 ‘남자로서의’, ‘여자로서의’ 남녀의 역할구분과 전형적인 성특성의 소유는 개인이 현대사회의 한 인간으로서 적응하는데 저해요인이 되리라는 가정을 할 수가 있다. 전통적 성역할 고정관념에 근거한 역할구분이나 기대는 사회구성원 각자가 바라고 노력하는 대로 자아를 성취하고 사회에 공헌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할 뿐 아니라 각자의 가능성을 최대한 발휘하는데 장애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상 우리사회의 성역할에 대한 태도는 아직도 보수적, 전통적인 고정관념이 남아있어 남녀양쪽에 모두 자유로운 성특성의 발현을 저지하여 개방사회로 향한 진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앞으로의 우리사회의 흐름은 남녀모두에게 남녀양성의 긍정적인 특성, 즉 ‘양성성’을 공유하게 하여 자신의 능력을 충

분히 실행시켜 남녀 모두가 함께 자아실현의 길에 도달할 수 있는 인간으로서 성장하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Ⅲ. 연구 방법 및 절차

성역할 관련분야의 연구에서 기초가 되는 것은 바로 한 사회의 많은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일이다. 본 연구에서는 성역할 측정도구를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은 2단계의 조사의 결과에 따라 문항선정을 하였다.

1. 예비조사 : 척도제작을 위하여 성별 성역할특성군 수집

우리문화에서의 성역할 고정관념을 찾기 위한 목적으로 일차적으로 남성과 여성에 대해 특징있는 특성표현을 수집하였다. 성역할의 발달이론들과 I. K. Browerman²⁹⁾의 연구방법에 의해 1990년 9월 20일부터 29일까지 서울의 H 대학교와 K 대학교, 광주직할시의 C 대학교와 J 대학교의 남녀 대학생 90명과 그들의 부모 360명을 대상으로 남성적인 특성과 여성적인 특성을 묻는 다음과 같은 9가지 문항의 자유반응식 질문을 하였다.

- (1) 자신의 성격 중 여성다움을 나타낼 수 있는 말
- (2) 자신의 성격 중 남성다움을 나타낼 수 있는 말
- (3) 여자친구(남편/아내)가 여자답다고 느꼈을 때와 여자친구(남편/아내)의 성격과 태도 중 여성다움을 나타낼 수 있는 말
- (4) 여자친구(남편/아내)가 남자답다고 느꼈을 때와 여자친구(남편/아내) 성격이나 태도에서 남성다움을 나타낼 수 있는 말
- (5) 어머니(딸)이 여자답다고 느꼈을 때와 그 성격이나 태도에서 여성다움을 나타낼 수 있는 말
- (6) 어머니(딸)이 남자답다고 느꼈을 때와 그 성격이나 태도에서 남성다움을 나타낼 수 있는 말
- (7) 아버지(아들)가 여자답다고 느꼈을 때와 그

성격이나 태도에서 여성다움을 나타낼 수 있는 말

(8) 아버지(아들)가 남자답다고 느꼈을 때와 그 성격이나 태도에서 남성다움을 나타낼 수 있는 말

(9) 자신이 흥미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와 취미는?

총 2880개 이상의 형용사군과 문장군을 얻어내어 이 중 성차가 보여지지 않은 항목, 즉 남 여 양성에 게 모두 같거나 비슷한 내용으로 회답되었던 문장들은 제거하고, 연령에 관계없이 각 성에 따라 비슷한 내용으로 2번이상 언급되었던 문장들중 남성성 특성 79개, 여성성 특성 63개 문장이 각각 선택되었다. 가능한 한 용어는 그대로 인용하였다. 남성을 표현하는 어휘수가 여성을 표현하는 어휘보다 많이 선택되었다.

2. 본 조사 : 성역할검사 척도 문항 구성

제2단계인 양성성 시각에 의한 성역할 태도의 문항구성을 위한 조사는 1단계에서 수집된 142개 문항과 정진경의 한국형 성역할 문항과 김영희의 성역할 문항 중 본 연구자의 문항과 겹치지 않은 문항을 포함한(정진경의 9문항, 김영희의 5문항) 총 156개 문항으로 실시하였다. 이를 포함시킨 이유는 예비조사의 결과에 포함되지 않은 다양한 성격특성들을 추가하여 자료를 보완하려는 것이다.

첨가된 문항은 다음과 같다.

* 정진경의 첨가문항 : 남성성... 털털하다 여성성... 싹싹하다

긍정성... 융통성이 있다. 성숙하지 못하다. 염세적이다. 심술궂다. 부주의 하다. 불건전하다. 독선적이다.

* 김영희의 첨가 문항 : 여성성... 자기감정을 호소한다. 말을 아름답게 표현한다.

중성성... 체면을 중시한다. 웃어른을 섬긴다. 인간애가 있다.

조사기간은 1990년 11월 3일부터 28일에 걸쳐 질문지법으로 실시하였다. 질문지는 1부와 2부로 나누어져 있으며 서울과 광주지역의 18세 이상의 성인 982명 자료가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 조사대상은 (표 1)과 같다.

<표 1> 본조사의 조사대상

	서울(457)		광주(525)		계
	남	여	남	여	
20대	82	95	91	80	348
30대	32	35	47	52	166
40대	44	48	56	65	212
50대	57	64	79	56	256
계	215	242	273	252	982

조사참가자 서울: H대학교와 K대학교의 학생과 부모 및 교수
 강남구 S여자중학교의 학부모
 강남터미널 고속버스 운전사와 직원
 여성단체 S회 회원
 광주: C대학교와 J대학교의 학생과 부모 및 교수
 S국민학교 학부모
 J여고의 학부모
 J상호신용금고의 직원
 여성단체 S회 회원

질문지 1부는 한국사회에서의 여성성과 남성성에 대한 척도 이른바 성역할 고정관념을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자신의 성격특성과 관계없이 "한국사회에서는 여성 또는 남성의 특성이라고 생각되는 정도"를 5점 척도로 표시하게 하였다. 이 결과 응답자의 75% 이상이 남성성과 여성성, 그리고 공통적인 특성이라고 동의한 남성성 문항 35문항, 여성성문항 40문항, 남녀공통적인 특성인 11문항이 선정되었다(표2). 2부는 한국사회에서의 바람직한 특성에 대한 문항을 선별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의 특성들은 한국사회에서 어느 정도 바람직한 특성입니까?"라는 물음으로 1부와 똑같은 문항으로 7점 척도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역시 Browerman의 연구방법에 의해 응답자의 75% 이상이 한국사회에서 바람직하다고 인정하는 문항 중 높은 빈도를 나타낸 항목순위로 정리하여 (표 2의 *표시) 각각 "남성지향가치특성"(20문항) "여성지향가치특성"(20문항) "공통성지향가치특성"(10문항)으로 이름붙여 본 조사에서 사용된 한국사회의 성역할 척도 항목으로 선정하였다. 이러한 용어사용은 이미 일본의 東 清和³⁰⁾가 "여성의 속성은 여성지향가치인자, 남성의 속성은 남성지향가치인자"라고

표현한 적이 있는 것으로 양성성이론 출현이후 집단 구분에서의 남성성(Masculine), 즉, 남성적 성격 혹은

<표 2> 성별고정관념특성과 성별지향가치특성

남 성 성	여 성 성	공 통 성
(1) 일의 추진력이 좋다*	(1) 요리를 잘한다*	(1) 착실하다*
(2) 용기가 있다*	(2) 부드럽다*	(2) 일기를 쓴다*
(3) 대담하다	(3) 상냥하다*	(3) 침착하다*
(4) 무뚝뚝하다	(4) 집안일을 잘한다*	(4) 성실하다*
(5) 체구가 크다	(5) 연약하다	(5) 솔직하다*
(6) 불의에 쉽게 흥분한다	(6) 감정이 여리다	(6) 생각이 깊다*
(7) 어려운 일을 나서서 한다*	(7)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쓴다*	(7) 영화감상을 좋아한다
(8) 사회면에 관심이 있다*	(8) 순종적이다	(8) 양보심이 많다*
(9) 믿음직스럽다*	(9) 디자인에 관심이 있다	(9) 일처리가 현명하다
(10) 박력이 있다*	(10) 얌전하다*	(10) 종교를 믿는다*
(11) 성격이 시원시원하다*	(11) 섬세한 감각을 지녔다*	(11) 웃어른을 섬긴다*
(12) 큰일을 잘 처리한다*	(12) 감정이 풍부하다*	
(13) 지도력이 강하다*	(13) 아기자기하다	
(14) 자신감이 있다*	(14) 다소곳하다*	
(15) 결심한 것을 쉽게 추진한다*	(15) 꾸미고 가꾸는 것을 좋아한다.	
(16) 보호심이 있다*	(16) 조그만 일에 예민하게 반응한다	
(17) 결단력이 있다*	(17) 잘 토라진다	
(18) 의지가 강하다*	(18) 망설이기를 잘한다	
(19) 강하다	(19) 얼굴이 잘 빨개진다	
(20) 야망이 있다*	(20) 잔소리를 잘한다	
(21) 운동을 좋아한다*	(21) 어려운 상황에서는 의지하려고 한다	
(22) 사회성이 좋다*	(22) 눈물을 흘린다	
(23) 적극적이다*	(23) 자기 감정을 호소한다	
(24) 말을 억세게 한다	(24) 변덕스럽다	
(25) 일을 끝까지 밀어붙인다	(25) 피아노를 좋아한다*	
(26) 큰소리를 잘친다	(26) 질투심이 많다	
(27) 성질이 급하다	(27) 눈치가 빠르다*	
(28) 조그만 일에는 신경을 안쓴다	(28) 낭만적인 이야기를 좋아한다	
(29) 큰소리로 이야기한다	(29) 짹짹하다*	
(30) 집안수리를 잘한다*	(30) 여성적이다	
(31) 남성적이다	(31) 꼼꼼하다*	
(32) 모험적이다	(32) 외모에 신경쓴다*	
(33) 목적하다*	(33) 아름다운 것을 좋아한다*	
(34) 바둑에 관심이 많다	(34) 걱정이 많다	
(35) 낚시를 좋아한다	(35) 따지기를 잘한다	
	(36) 따듯하다*	
	(37) 애교가 있다*	
	(38) 알뜰하다*	
	(39) 유순하다*	
	(40) 깔끔하다*	

은 여성성(Feminine) 즉 여성적 성격과의 사이의 혼돈을 막고 용어를 사용함에 있어서 명확히 구분하고자 하는 의도로 앞으로의 연구에서도 이러한 용어구분을 제시하고자 한다. 공통성이란 성별과 관련지어서는 어느 한 성에게 있어서보다는 일반적으로 남녀 모두에게 나타나거나 바람직한 정도에 있어서도 비슷한 판단을 한 문항들이다. 이것을 정진경은 '공정성'이라고 표현하였으며 김영희는 '중성성'이라고 표현하였다.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남성지향가치특성 : 사회에서 바람직하다고 간주되는 특성으로 여성보다 남성에게 더욱 적절한 행위, 태도, 가치관을 의미한다.

(2) 여성지향가치특성 : 사회에서 바람직하다고 간주되는 특성으로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욱 적절한 행위, 태도, 가치관을 의미한다.

(3) 공통성지향가치특성 : 어느 한쪽 성에게보다는 남녀모두에게 적절하며 바람직하다고 간주되는 행위, 태도, 가치관을 의미한다.

이 문항들을 선정 한 후 남성지향가치특성, 여성지향가치특성, 공통성지향특성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를 내어 본 결과 여성성 0.90, 남성성 0.91, 공통성 .78로 산출되어쓰며 반분 신뢰도는 .90, 90, 79로 만족스러울 만큼 높게 산출되었다. 또한 전체 응답자의 성별로 남성지향가치특성, 여성지향가치특성의 점수의 평균을 내고, 각 점수에서 남녀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t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3)와 같다.

〈표 3〉 남성과 여성의 지향가치특성 점수에서의 성차이

		남	여	t
남성지향	평균	4.81	4.30	7.18***
가치특성	표준편차	0.96	1.01	
여성지향	평균	4.65	4.81	-2.32*
가치특성	표준편차	0.91	1.01	

남성지향가치변인에 대해서는 남성응답자들이(p<.001), 여성지향가치변인에 대해서는 여성응답자들이 유의미하게(p<.05) 점수가 높았다.

남녀 응답자 모두에게 있어서 남성지향가치특성은

남성에게 여성지향가치특성은 여성에게 점수가 높게 나타나 이러한 것은 문항 선정의 기준에 따른 직접적인 결과로써, 남성성척도, 여성성 척도의 안면 타당도를 보여준다.

이 문항의 결과를 종합하여 BSRI와 KSRI들과 비교해 보면, 물론 문항선택종류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지만 전체적인 남성적 특성과 여성적 특성의 성고정관념의 흐름에 있어서는 매우 유사하였다. 즉 동서양을 막론하고 남성적 특성은 독립적, 지배적이며 여성적 특성은 따뜻하고 민감한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³⁰⁾ 역시 Broverman 등의 연구결과에서도 남성에 가치가 있는 특성군은 능력에 관한 특성군이고 여성에게 가치가 있는 특성군은 온화함과 표정의 풍부함에 관한 특성군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성별지향가치특성군의 결과는 아직도 우리사회는 Parsons의 남성에 있어서 '수단적 역할'과 여성에 있어서 '표현적 역할'을 지지하고 있는 의식이 만연해 있다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하위척도의 각 문항들은 사회문화적 전통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으므로, 한국의 문화적 특성을 고려하여 양성성 이론에 입각한 한국인의 남성적, 여성적 특성으로 구성된 성역할 정체감 척도의 개발은 여러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고 본다.

3. 채점방법

본 검사자는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은 절차를 통해 선정된 남성지향가치 20문항, 여성지향가치 20문항, 공통성지향가치 10문항의 50문항의 성역할특성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의 문항들에 대해 자신의 특성에 적합하는 정도에 따라 전연 그렇지 않음 (1)에서부터 항상 그러함 (7)까지 7점 척도에 따라 응답하게 되어 있다. 전체 응답자의 남성성과 여성성의 점수의 중앙치를 준거로 하여 각 개인의 성특성을 중앙치 분리법³¹⁾에 의해 양성성, 남성성, 여성성, 미분화의 네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따라서 '양성성집단'이란 한 개인안에서 남성성과 여성성이 통합되어 있는 것을 의미하며 남성지향가치특성점수와 여성지향가치특성점수가 모두 중앙치이상인 집단이다. '미분화집단'이란 한 개인의 성역할 정체감에 있어서 남

성지향가치특성과 여성지향가치특성 중 어느 한 쪽도 잘 표현되지 않은 집단으로 점수에 있어서 모두 중앙치 이하인 집단이다. '남성적 집단'과 '여성적 집단'은 어느 한쪽 성만의 특성이 중앙치 이상으로 표현된 집단이다.

〈표 4〉 중앙치 분리법에 따른 응답자의 성역할 특성분류

		여성성 점수	
		중앙치 이상	중앙치 이하
남성성 점수	중앙치 이상	양 성 적	남 성 적
	중앙치 이하	여 성 적	미 분 화

4. 타당도 검증

김명자의 중년기의 위기감 척도³⁹⁾와 남성지향가치 특성, 여성지향가치특성과의 상관관계를 내어본 결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여($r=.43, r=.37 p<.001$) 비교적 적절한 외부준거변인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중년기위기감 척도를 이용하여 본 조사결과인 성역할정체감 척도의 타당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검사는 광주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중년기 남녀 1200명에게 1991년 3월 10일부터 3월 17일까지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 중 질문지의 기재의 불성실과 반응누락자를 제외하고 만 39세부터 59세까지의 연령에 속한 748명의 자료만 분석에 사용하였다.

분류방법과 분류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 중년기의 성역할 정체감 유형 분류

		여성지향가치 (중앙치 = 4.75)	
		중앙치 이상	중앙치 이하
남성지향 가치 (중앙치 = 4.66)	중앙치 이상	양성성집단	남성성집단
		남성성=5.46 남성성=5.23 여성성=5.60 여성성=4.03	
	중앙치 이하	여성성집단	미분화집단
		남성성=3.85 남성성=3.64 여성성=5.29 여성성=3.88	

성역할정체감 유형별로 준거변인인 중년기의 위기감에 대한 차이를 알아보았다(표 6).

〈표 6〉 성별 성역할 정체감에 따른 위기감 검증

집단	위 기 감			
	N	M	F-Value	Duncan
양성성	142	3.15	15.56***	A
남성성	82	2.95		B
여성성	36	2.80		B
미분화	109	2.79		B
양성성	110	3.02	5.59*	A
남성성	42	2.79		B
여성성	98	2.85		B
미분화	129	2.83		B

위기감은 성역할 유형집단간에 여성의 경우 $p<.05$ 수준에서, 남성의 경우 $p<.001$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남성의 경우 양성성, 남성성, 여성성, 미분화 특성의 순으로 위기감 점수가 낮았으며, 여성의 경우는 양성성, 여성성, 미분화, 남성성 순으로 위기감 점수가 낮게 나타났다.

점수가 낮을수록 위기감이 높은 수준이라는 점을 볼 때, 남녀 모두 양성성인 사람은 위기감이 적었다. 그러나 높은 위기감 수준을 지닌 사람은 남성의 경우 미분화적인 특성을 지닌 사람이며, 여성의 경우는 남성성의 특성을 지닌 사람이 위기감이 높게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어느 한 쪽 성의 특징도 잘 표현되지 않은 미분화적 집단과 여성의 경우 자신과 반대성의 특성을 가진 남성성 집단은 중년기에 있어서 부적응 현상으로 위기감이 높다. 이는 '개인은 문화가 규정하는 성역할을 따르지 않으므로써 내적 갈등을 겪게 되며; 특히 여성의 경우 남성적인 여성의 자아발전과 성숙이 장애를 받는 것은 있을 법한 일이다'라고 한 정옥분⁴⁰⁾의 설명과 일치한 내용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가 우리사회의 남녀에 대한 성차에서 오는 결과인지에 대한 것은 다른 문화와의 비교문화연구에서 밝혀질 수 있을 것이며 발달단계에서의 이 연령층의 특징인가에 대해서는 다른 연령과 비교하여 봄으로써 밝혀짐과 동시에 본 검사의 타당도를 더욱 확실하게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어떤 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지

를 알아보기 위하여 Duncan Test를 실시해 보았다. 남녀 모두 양성성인 사람이 성정형화된 사람이나 미분화된 특성을 지닌 사람보다 위기감이 낮게 나타났다. 이와 비슷한 결과로 Eman과 Morse³⁰⁾의 연구에서는 양성적인 집단의 사람들이 다른 세 집단의 사람들 보다 높은 수준의 자기 수용성, 타인 수용성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양성성 이론과 Jung의 이론과 같이 양성적인 특징을 지닌 사람은 환경에 건강하게 적응할 수 있어 위기감을 수반하지 않는다는 것이 입증되어 본 연구의 결과인 성역할정체감 척도는 1차적으로 타당도가 입증되었다. 본 척도의 타당도는 앞으로 다양한 분야의 특성들과 관련지어 살펴봄으로써 다면적으로 입증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성역할에 관한 이제까지의 연구에서는 중년기에 대해서 연구된 바가 없기 때문에 위의 결과와 관련하여 중년기에서의 이 분야의 연구가 좀 더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IV. 결과 및 논의

본 연구에는 우리 사회의 성역할 고정관념들을 밝혀내어 우리 문화에 적합한 성역할 정체감척도를 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문항선정의 원칙에 있어서 양성성 이론을 기초로 문항을 선정하였으며 지역의 차에서 오는 표현과 인성특성의 차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서울과 광주직할시의 총 1,520명을 대상으로 성역할문항을 수집하여 작성하였다. 검사도구의 신뢰도를 산출한 결과 내적 합치도 계수(α)는 남성지향가치특성은 .90, 여성지향가치특성은 .91, 반분신뢰도값은 .90, .90, .79로 높게 산출되었다.

한국 사회의 성역할고정관념에 근거하여 남성지향가치특성으로 나타난 것은 다음과 같다.

용기가 있다. 일의 추진력이 좋다. 자신감이 있다. 큰 일을 잘 처리한다. 지도력이 강하다. 의지가 강하다. 믿음직스럽다. 집안수리를 잘한다. 사회면에 관심이 있다. 결단력이 있다. 야망이 있다. 운동을 좋아한다. 성격이 시원시원하다. 적극적이다. 목적하다. 박력이 있다. 사회성이 좋다. 결심한 것은 쉽게 추진한다. 어려운 일을 나서서 한다. 보호심이 있다.

한국 사회의 성역할 고정관념에 근거하여 여성지

향가치특성으로 나타난 것은 다음과 같다.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을 쓴다, 눈치가 빠르다, 상냥하다, 유순하다, 섬세한 감각을 지녔다, 다소곳하다, 얌전하다, 외모에 신경을 쓴다, 씩씩하다, 꼼꼼하다, 아름다운 것을 좋아한다, 깔끔하다, 피아노를 좋아한다, 집안일을 잘 한다, 요리를 잘 한다, 알뜰하다, 부드럽다, 따뜻하다, 애교가 있다, 감정이 풍부하다.

또한 이 검사의 타당도를 입증하기 위하여 외부준거변인으로서 중년기의 위기감을 개입하여 분석하였다. 응답자 748명을 대상으로 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4가지 성역할집단에서 위기감을 가장 적게 느끼고 있는 집단은 남성의 경우 (1) 양성성 (2) 남성성 (3) 여성성 (4) 미분화집단 순이며 여성의 경우는 (1) 양성성 (2) 여성성 (3) 미분화 (4) 남성성집단의 순이다.

이러한 결과들에 의해 본 연구의 “성역할 정체감 척도”는 주로 외국의 검사도구를 번역, 수정하여 사용하였던 기존의 연구들과는 달리, 우리 문화에서 나타나는 성역할 고정관념을 선정하여 추출한 특성들을 기초로 이루어졌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최근 발전하고 있는 양성성 이론의 시각에 준하여 개발된 척도로서 이 분야의 이론들과 부합한다는 강점도 가지고 있다. 앞으로 규준 및 타당도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표본의 특성이 일부 도시 지역에 국한되어 실시되어 농촌과 어촌지역사회의 표본으로는 미비점이 있다는 제한점을 갖으나 현재로서는 한국인의 성역할정체감을 측정하기에 비교적 신뢰할 만하고 타당한 척도라고 평가할 수 있다.

앞으로의 후속연구들에서는 우리사회의 계층간, 세대간 등의 여러 집단을 대상으로 성역할 태도를 밝혀내어 전국적인 규준이 작성되는 것이 요망되며, 다양한 변인들과의 관련성을 검증함으로써 이 검사의 문항이 지니는 속성을 밝혀내는 연구를 시도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 1) 정진경, 성역할 연구의 양성적 시각, 한국여성학, 제3집, 1987, p.132-160.
- 2) 김태련, 장휘숙, 발달심리학, 박영사, 1990, p.289.
- 3) Bem, Sandra, L., "The Measurement of Psychological Androgyn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Vol.42, No.2, 1974, p.155-162.
- 4) 東 清和, 小倉干加發, 性差の發達心理, 大日本圖書, 1984, p.172.
- 5) Bem, Sandra, L., "Sex role Adapatability : One Consequence of Psychological Androgyn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31, No.4, 1975, p.634-139.
- 6) Spence, J. T., Helmreich, R., & Stapp, J. "Ratings of self and peers on sex role attributes and their relation to self-esteem and conceptions of masculinity and feminin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2, 1975, p.29-39.
- 7) 李符英, 분석심리학——C. G. Jung의 인간심성론——일조각, 1990, p.71-111.
- 8) 켈빈 S. 홀(외) 著, 융심학 입문, 최 현 譯, 범우사, 1991, p.58-120.
- 9) 서봉연 譯, 발달의 이론, 중앙적성출판사, 1986, p.306-326.
- 10) 정진경, 한국 성역할 검사(KSRI),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Vol.5, No.1, 1990, p.82.
- 11) Brislin, R. W. Translation and content analysis of oral and written material. In H. C. Triandis and J. W. Berry (Eds) *Handbook of cross-cultural psychology* Vol.2, Boston : Allyn and Bacon, Inc. 1980, p.389-444
- 12) 김영희, 한국형성역할검사(Korean Sex Role Inventory) 개발연구, 아세아여성연구, 제27집, 1988, p.153-182.
- 13) 정진경 전게서.
- 14) Jacobi, J., The Psychology of C. G. Jung, 역 : 이태동 ; 칼 융의 심리학, 성문각, 1982.
- 15) A. K. Tomeh, "Sex role Orientations : An Analysis of Structural and Attitudinal Predictor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1978, 34, p.1-353.
- 16) 東 清和, 小倉干加發, 性役割の心理, 大日本圖書, 1989, p.158.
- 17) Whitley, "Sex-Role Orientation and Self Esteem : A Critical Meta-Analytic Review",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44, No.4, 1983, p.766.
- 18) Constantionople, A., Masculinity-Femininity : An exception to a famous dictum? *Psychological Bulletin*, 80, 1973, p.389-407.
- 19) Shichman and Cooper, "Life Satisfaction and Sex-Role Concept" *Sex-Role*, Vol.11, Nos.3 / 4, 1984, p.231.
- 20) 東 清和, 小倉干加發, 性差の發達心理, 大日本圖書, 1984, p.173.
- 21) 조복희, 정옥분, 유가효, 인간발달——발달심리적 접근, 교문사, 1983, p.374.
- 22) Maracek, J. Social change, positive mental health, and psychological androgyny. *Psychology of Woman Quarterly*, 3, 1979, p.241-247.
- 23) 윤 진, 남여차이에 대한 심리학적 고찰, 한국사회학 제15집, 1981, p.31.
- 24) 장동환의 심리학입문, 박영사, 1986, p.479.
- 25) Jones, W. H., Chernovertz, M. E., & Hansson, R. O. the enigma of androgyny : Differential implications for males and femal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6, 1978, p.298-313.
- 26) Yager, G. G., & Baker, S. Thoughts on androgyny for the counseling psychologist.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Convention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87th, New York, NY., September, 1979).
- 27) 김형덕, 미래 사회에의 도전과 준비, 한국여성개발원, 여성연구, 가을호, 1986, p.10-13.
- 28) Pleck, J. H. "The male Sex role : Definition, problems and sources of change.", *Journal of Social Issues*, 32, 1976, p.155-164.
- 29) Broverman, I. K., Vogel, S. R., Broverman, D. M., Clarkson, F. E. & Rosenkrant Z. P. S. "Sex-

- role stereotypes : A current appraisal" *Journal of Social Issues* 28(2), 1972, p.59-78.
- 30) 東 清和, 性差의社會心理, 大日本圖書, 1990, p. 75-101.
- 31) Gerry, Ryan, Ciaran Dolphin, Ulf Lundberg, & Anna-Lisa Hysten, "Sex role patterns in an Irish student sample as measured by the Bem Sex Role Inventory", *Sex Roles, Vol.17*, 1987, p.17-29.
- 32) Cook, E. P., *Psychological androgyny*. N. Y. : Pergamon Press, 1985.
- 33) 김명자, 중년기 위기감 및 그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1989.
- 34) 정옥분, 한·미 양국 대학생의 성역할 정체감과 자존감에 관한 비교문화연구, 대한가정학회지, 제24권 2호, 1986, p.126.
- 35) Eman, V. A., & Morse, B. W., A multivariate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androgyny and self-esteem, self acceptance and acceptance others.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Speech Communications and sociation(63rd, Washington, D. C., December, 1977).